

장흥군, 농수산물 아프리카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郡, 남아공에 '해외판매 센터' 개설 현지 유통업체 100만불 수출 협약 쌀·무산김·표고버섯 가공품 등 선배

장흥군이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아프리카 시장 교두보를 확보했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농수산물 해외판매센터를 신규 개설하고, 현지 유통업체와 수출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본격 나섰다.

이번 해외판매센터 개설은 장흥군 농수산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추진됐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는 아프리카 경제·물류 중심지로, 인근 국가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 유통업체 T J F TRADING, SWEET HOME MART(스위트홈마트)와 각각 2년간 50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총 100만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했으며, 장흥 농수산식품의 지속적인 해외 판로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T J F TRADING, Lemon Consulting(레몬 컨설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각 기업은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3천300㎡)에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구축을 위해 각각 약 15억원을 투자하고, 기업당 10명씩 총 2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투자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다.

해외판매센터에서는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쌀, 무산김, 표고버섯 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강식품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흥 농수산식품의 차별화된 품질과 경쟁력을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미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상담회, 판촉행사, 한인축제 참가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베트남 달랏(2023년)과 중국 청도(2024년)에도 장흥군 해외판매센터를 개설해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중에 있다.

이번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요하네스버그 해외판매센터 개설과 수출·투자협약 체결은 장흥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



장흥군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특산물 판매장을 개소했다. (장흥군 제공)

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과 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농수산식품 산업의 경쟁 /장흥=노형록 기자



구례군은 최근 군청에서 김순호(가운데) 군수와 ㈜유선기업, SK이더닉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 기본소득 창출"

郡, 유선기업·SK이더닉스 업무협약 지역향 풍력·분산형 태양광 등 추진 생태계 조화·경관 훼손 갈등 최소화

구례군이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돌려주는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 기본소득' 창출에 본격 나선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 전문 기업인 ㈜유선기업, SK이더닉스와 함께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김순호 구례군수를 비롯해 ㈜유선기업, SK이더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의지를 공식화하고,

주민 이익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의 가장 주목할 점은 주민이 수익 배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군은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식을 넘어,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군은 단순한 발전 용량 확대보다 생태계와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육상풍력은 부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식물·동물·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도록 '지역향 풍력' 방식을 채택한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대규모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방식을 도입한다. 농지·임야의 무분별한 전용을 지양하고, 유휴 부지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소규모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경관 훼손

과 토지 이용 갈등을 최소화한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경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을 지키는 것이 곧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의 바람과 햇살이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실질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생에너지 개발의 표준 모델을 제시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자립 도시이자, 기본소득 실현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덧붙였다.

/구례=김세중 기자

여수해수청, 어업경영체·수산공익직불제 홍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수산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한 어업경영체 등록과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을 홍보했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은 어업경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연간 60일 이상 어업 종사 또는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으면 등록 가능하며, 일정한 의무

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국가에서 소득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홍보는 해양수산 관계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가까운 지자체(읍·면·동)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어촌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산공익직불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금액 등 주요사항을

안내해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을 독려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어업인과 함께 부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익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청렴한 해양수산 행정 구현의지를 다졌다.

선영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한 금번 홍보를 통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 월산면-순창 적성면, 고향사랑기부 상호 기탁

담양군 월산면은 6일 "전북 순창군 적성면과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를 통해 지자체 간 상생 발전과 협력 관계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지역 지역공직자 등 30여명은 앞서 지난 2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및 상생 발전 간담회'를 열고 각 130만원의 기부금을 교차 전달했다. <사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양측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각 지역의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문화와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효정 월산면장은 "올해에도 기꺼이 뜻을 모아준 적성면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상생 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안팎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담양=정승규 기자

장성군, 1년 치 종량제 봉투 확보

판매소에 정상 운영 당부 공문 발송

장성군은 6일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과 관련해 올해 사용할 물량을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올해분 종량제 봉투를 지난 3월에 제작 완료해 올해 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군은 읍·면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 구입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 판매소마다 정상적인 운

영을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군은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 보고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불법 사재기 예방을 위해 현장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종량제 봉투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국세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민심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태기 기자

화순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대응체계 강화

제4급 법정감염병 신규 지정

화순군은 6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이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감염관리·치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병은 곰팡이(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환자 간 접촉이나 오염된 의료가,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어 면역저하자에게 침습성 감염이 발생할 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철저한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전국 38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화순군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표본감시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발생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격리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부담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법정감염병 지정으로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증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경중치매환자들이 곡성 '기억꽃 피움터'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치유농업으로 치매환자 인지도 높인다

경중치매환자 '기억꽃 피움터' 운영

곡성군이 경중치매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억꽃 피움터'를 운영하고 있다.

6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자연과 교감하는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인지기능을 자극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은 곡성군치유농업센터와 겸면 자연농기에서 진행되며, 경중치매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이뤄진다.

참여자의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피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측정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지기능 변화와 정서적 안정 정도를 분석하고, 치유농업이 건강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텃밭 가꾸기, 실내 원예활동, 도예체험 등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농작물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식물을 활용한 감각자극과 심리적 안정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손을 활용한 반복적이고 섬세한 작업을 통해 집중력과 성취감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경중치매환자의 인지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곡성=김영철 기자